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슬기로운 경제 전망 활용법
- 이슈분석** 대한대출인프라 확대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금융경영브리프** ICBC,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 마비
2024년, 은행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물가지표 및 경기 둔화 시그널에 하락 지속
외 환 : 원/달러 환율, 방향성은 아래
부 동 산 :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중현(jh.kim_)

논단

연구위원 정유탭(jungyt)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심윤보(simjunil)
수석연구원 장혜원(hwja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슬기로운 경제 전망 활용법
- 04 **이슈분석** 대환대출인프라 확대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08 **금융경영브리프** ICBC,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 마비
2024년, 은행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물가지표 및 경기 둔화 시그널에 하락 지속
외 환 : 원/달러 환율, 방향성은 아래
부 동 산 :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슬기로운 경제 전망 활용법*

정유태 연구위원

과거부터 경제 전망은 저조한 성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자 조롱의 대상이었다. 경제 전망은 수많은 가정(假定)의 불확실성, 이론과 모형의 불안전성 등으로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망 수치를 상수가 아닌 확률변수로 인식하면서 전망치 산출을 위한 가정들의 변화와 논리적 근거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망에 포함되어 있는 상·하방 위험을 경제 내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는 가운데 과거 전망이나 틀린 전망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경제 전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연구기관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제 전망은 틀렸다. 주요 기관들이 작년 말에 예상한 미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1.9%)보다 둔화된 1% 내외(Blue Chip 서베이는 0%대)였다. 그러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금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3분기까지 2.3%)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심지어 방향성도 다른 것(경기 둔화가 아닌 경기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 주요 기관들이 작년 말에 예상한 한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2.6%)보다 둔화된 1%대 후반이었으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한국의 금년 성장률은 1%대 초중반(3분까지 1.1%)이다. 방향성은 맞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과거부터 경제 전망은 저조한 성과(낮은 정확도)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자 조롱의 대상이었다. Economist紙¹⁾는 IMF 전망치의 정확성이 과거 평균 성장률을 이용한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경기침체 전망에서 있어서는 랜덤(무작위 추출) 전망치보다도 성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IMF의 한 연구기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침체 및 침체 규모를 예측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이나 동일했다. 그래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경제 전망의 유일한 기능은 점성술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계속 회자되는지도 모른다.

2023년에도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 전망은 틀린 것으로 나타나

과거부터 경제 전망은 부정확한 예측력으로 신뢰에 타격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A mean feat”, The Economist, 2016.1

[2] “How Well Do Economists Forecast Recessions?”, Zidong An et al, IMF WP, 2018.3

∴ 경제 전망은 “도대체” 왜 틀리는가?

경제 전망의 오차는
수많은 가정의
불확실성에서 비롯

과거부터 경제 전망은 무수히 시행되어 왔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망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은 왜 계속 틀리는가? 우선, 경제 전망은 수많은 가정(假定)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경제를 전망할 때 글로벌 성장률 및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주요 해외변수(외생변수)들에 대한 향후 흐름을 전제 조건으로 사용하는데 이들 변수들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전망 오차는 불가피하다. 특히, 팬데믹이나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망 오차는 더욱 확대되게 된다. 2019년 말(10월)에 IMF가 예상한 2020년 세계 및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4%와 2.2%였으나, 실제 2020년 세계 및 한국 성장률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각각 -2.8%와 -0.7%를 기록하였다.

경제 모형의 과거
의존성 역시 전망의
예측력 저하를 견인

아울러 전망에 활용되는 경제 모형이 과거의 규칙성만을 반영한다는 점도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경제 모형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패턴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지만, 규칙성은 변화할 수 있다. 가령, 세계 성장률이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탄력도)이 과거와 달라졌다면 세계 성장률에 대한 가정이 정확해도, 국내 성장률 전망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과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금년에도 과거와 같이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계의 초과저축 및 높은 고정금리 비중 등으로 금리 민감도가 약화(또는 금리 충격 지연)되면서 침체는 모면했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규칙성 변화는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 변화 이후 더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변수 자체의 추세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경제 이론 및 모형의
근본적·구조적 한계에
따른 현실과의 괴리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경제 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경제 이론과 경제 모형에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 전망에 기초가 되는 경제 이론이나 경제 모형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정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주체들 간의 이질성(소득 수준, 부채보유 여부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모형과는 다른 결과(상이한 방향성, 충격 파급효과 및 변동성 확대 등)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이론(모형)의 괴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전망 오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 경제 전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수많은 가정의 불확실성, 경제 이론과 경제 모형의 근본적 한계 등으로 미래 경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도 경제 전망은 필요한가? 비록 전망이 불완전하더라도 가계·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정부·중앙은행의 정책 시행 등을 위해서는 경제 전망이 없어서는 안 된다. 경제 전망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이자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에 대한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경제 전망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경제 전망 수치는 전망 당시에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전망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전망치가 산출되는 여러 가정들과 논리적 근거 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 상황이 변하면 전망치도 변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가운데 전망치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주목(통상적으로 전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경제 흐름 파악 및 대응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망 기관들 사이의 전망 수치에 차이가 발생해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을 보면 보통 “전망의 상·하방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얼핏 보면 이럴 경우에 이럴 수도, 저럴 경우에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 내 불확실성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전망의 상·하방 위험도 변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 내 주요 이슈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망의 위험요인들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에 대한 평가도 단기 변동이나 중장기 추세 변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경제 전망에는 유통 기한이 있다. 경제 여건 변화 및 경제 충격 발생으로 전망이 틀리게 되거나 전망 시점이 지나게 되면 전망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틀린 전망이나 과거의 전망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전망 오차의 발생 이유를 파악하여 이론과 모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정책 효과를 분석(가령, 팬데믹 이전 전망치와 팬데믹 이후 실제치의 격차를 통해 팬데믹 충격 가늠)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 전망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망은 종착점이 아니라 기준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망은 불완전해도
의사결정 정보 제공과
판단 기준으로서 중요

전망 수치뿐만 아니라
산출 위한 가정들과
논리적 근거에도 주목

전망의 상·하방 위험을
경제 내 불확실성의
중요한 정보로 인식

“죽은 경제 전망의
살아있는 시사점”을
위해 스토리에 집중

대환대출인프라 확대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김혜미 연구위원

'23.12월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담보대출·전세대출도 대환대출인프라에 포함된다. 아파트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캐피탈 등 3개 영역으로 구분, 영역간 이동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초기에는 DSR규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제한적이거나,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만큼 금리인하가 돌입 시 대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회사 유출입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아파트담보대출·전세대출도 대환대출인프라에 포함

- 5월 31일 신용대출 대환대출인프라가 출범, 11월 10일까지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해 8만 8천여명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한 것으로 나타남
 - 11월까지 대환대출인프라 이용금액은 약 2조원으로 초기 설정한도²⁾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태
-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에는 아파트담보대출과 보증전세대출이 대환대출인프라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계 대출 대부분이 대환대출인프라 대상에 해당

■ 23년 5월 이후 대출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여서 신용대출 대환대출인프라 이용금액은 크지 않았으며, 주로 1금융권간 이동이 대부분

- 5월말부터 11월초까지 신용대출 대환규모가 2조원에 불과한 것은 지금이 금리 상승기여서 과거에 받은 신용대출금리 대비 대환 시 금리매력도가 높지 않아 대환수요는 클 수 없었음
 - '23년 5월 이후 신용대출금리가 과거 대출한 신용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편, 그 결과 전체 신용대출 238조원('23.6월기준) 중 0.85%만 대환
- 대환대출인프라 도입 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고신용자의 은행간 이동이 대부분이었고,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혹은 제2금융권내 이동은 제한적이었음

[1] 대환대출인프라란 다양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비교해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 기존에 대출 받은 상품의 대환서비스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통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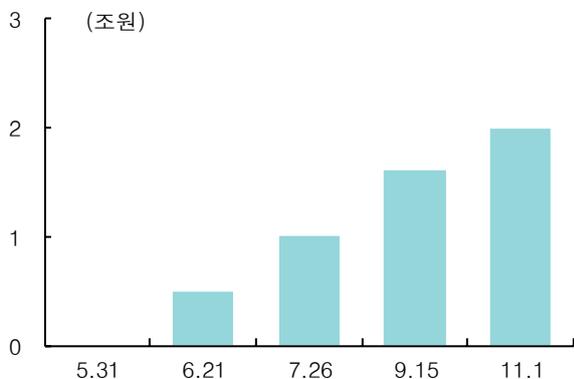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3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시범운영기간(잠정 2년)간 금융회사별 연간·월간 신규 취급한도 (예: 은행의 경우 연간 한도는 전년 신용대출 취급액의 10% 또는 4천억중 적은 금액)를 마련하였으나 현재는 초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 해제

- 제2금융권 차주는 취약차주가 많아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23년 들어 제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확대에 소극적이어서 플랫폼 참여가 저조하여 중저신용차주 선택 폭이 좁았음
- 다만 최근 은행권에서 중저신용자 전용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전환된 경우가 점차 증가 중
 -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개시 초기 9.3%에 불과했으나 '23년 11월 10일 기준 22.1%까지 증가

■ 신용대출과 달리 아파트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은 명확히 3개 영역으로 구분, 동일영역 내 이동이 대부분, 타 영역간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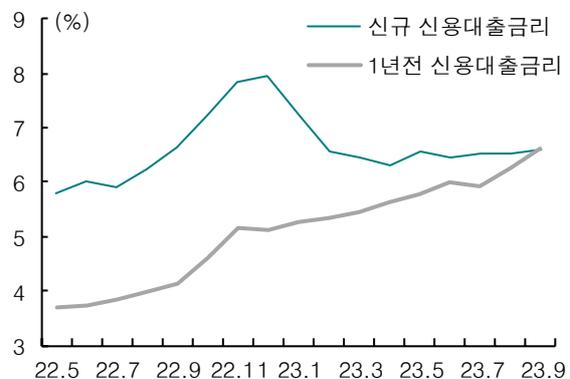
- 신용대출과 달리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아파트담보대출은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만큼 대환시장은 은행간, 보험사간, 저축은행·캐피탈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
 - 고신용도이지만 비은행권 DSR 규제비율(50%)이 은행(40%)보다 높아, 더 많은 대출한도를 받기 위해 보험사를 선택한 차주는 소득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그대로 보험사를 선택
 - 후순위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소비자는 대환시 후순위를 받아주는 저축은행·캐피탈을 선택하게 됨
- 또한 보증 기반 전세대출은 주로 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전세대출의 대환은 은행간 이동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

■ 대환대출인프라 이용금액 추이(누적)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은행 신규 신용대출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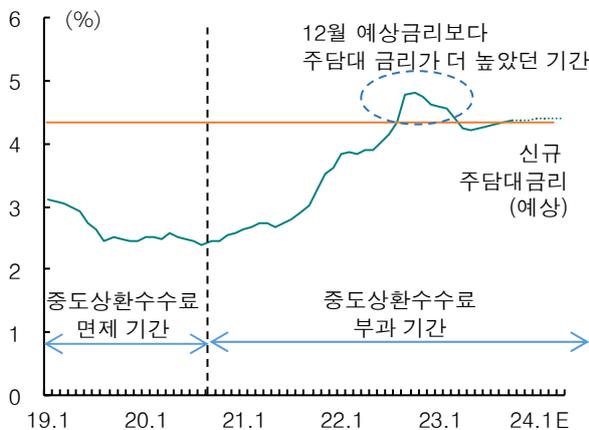
■ 오픈 초기에는 금리 상승 시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며 대환하려는 수요는 제한적

- 아파트담보대출·전세대출은 대출금액이 커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큰 편, 중도상환수수료 고려하여 대환대출금리가 매력도가 없을 경우 대환유인이 낮음
 -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0.5~0.7%)가 있어도 대출규모가 적어 수수료 부담이 높지 않아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환하는 것이 유리
 - 반면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1.1~1.5%, 전세대출은 만기(2년)까지 0.6~0.7%가 잔존일수로 계산하여 부과, 대출금액이 몇 억 단위임을 감안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크게 존재
- 올해 12월 아파트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예상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높던 기간은 '22.9월~'23.3월이나 중도상환수수료 고려 시 전세대출만 대환 시 유리
 - 예상대출금리와 '22.9월~'23.3월 금리격차는 아파트담보대출 최대42bp, 전세대출 최대92bp인데, 대출이 1년 경과됨을 고려 시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0.6~1.0%, 전세대출은 0.3% 부과되어 금리차에 수수료율을 차감해도 양수가 나오는 전세대출만 유리
- 다만 대출 금리가 여러 요인 등으로 예상보다 매우 낮게 형성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대환이 더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음
 - 11월 20일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대출기준금리(은행채, COFIX 등) 하락폭보다 더 크게 하락, 3%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도 등장

■ DSR규제 미적용 차주들은 24.3월 이후 DSR규제가 적용, 대환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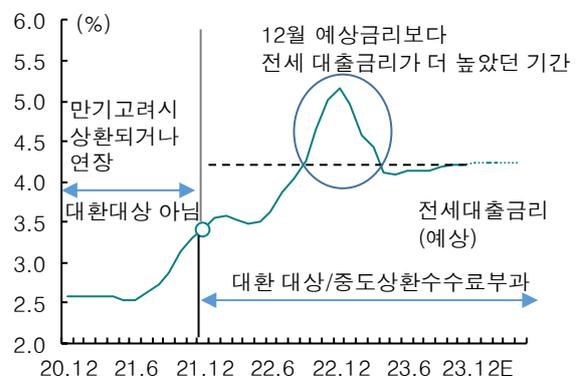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24년 3월말까지 DSR적용 예외조치³⁾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DSR비율이 적용되어 기존한도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 추이 및 예상금리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전세대출 신규 금리 추이 및 예상금리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³⁾ 올해 초 금융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갈아타더라도 새로운 금리나 조건으로 DSR을 계산하지 않고 처음 저금리에 대출 받았을 때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DSR규제를 완화

- DSR규제비용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DSR비율이 상승해서 지금 한도만큼 책정되지 않을 가능성
- 특히 '22년 7월 이전 新DTI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은 대환 시 개별 차주별 DSR규제를 적용, DSR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DSR규제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다가, '21년 7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 그리고 22년 7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경우 적용
 - '22년 7월 이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DSR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新DTI가 적용됐으나 대환시에는 DSR규제가 적용되어 대출한도 감소가능
- 또한 과거의 LTV(60%, 70%)가 적용된 아파트담보대출은 타 은행으로 대환시 현재의 LTV비율(50%, 비규제지역 70%)이 적용되므로 아파트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대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택대출 대환은 금리인하기에 본격 돌입 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도 설정 및 유지가 필요

- 올해 12월부터는 가계대출 대부분을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다수의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대출을 편리하게 대환신청 가능
 -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출비교플랫폼은 소수에 불과하나 19개(잠정) 대출비교플랫폼과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 등 32개(잠정) 금융사가 참여 예정이어서 소비자는 더 많은 금융사 상품 비교가 가능해짐
- 게다가 아파트담보대출 대환이 은행앱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미 비대면 대환수요는 존재하며, 향후 금리가 하락세 전환 시 대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전망
-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중 약 70%가 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기존 고객 이탈방어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사간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23.6월 기준 국내 주담대 및 전세대출은 971조원이나 이중 860조원이 은행에 집중
 - 주요 금융사들이 적극 대응을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함께 인하되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할 수 있음
- 추후 규모가 큰 주택대출이 활발하게 대환대출인프라에서 대환될 경우 급격한 자금 유출입이 나타날 수 있어 한도 설정 후 한도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함
 - 신용대출 대환은 실제 규모가 사전에 설정된 연간한도보다 적어 현재 한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대출은 초기에 대환수요가 적더라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금리하락으로 대환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할 필요 

ICBC,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 마비

심윤보 수석연구원

ICBC의 美 계열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고객사의 국채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며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 이후 美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으나, 참여자들이 거래 경로를 성공적으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영향은 미미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국내 금융사들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ICBC의 美 계열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며 美 국채 거래 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1]

- ICBC 파이낸셜 서비스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발표
 - ICBC 파이낸셜 서비스는 ICBC의 美 계열사로 주로 국채 거래 청산 업무를 수행
 - 이번 공격으로 ICBC 파이낸셜 서비스가 고객사의 국채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며, 거래 데이터 이전 및 거래 기관 변경 등 혼란이 발생
- ICBC는 공격받은 시스템을 격리하고 해당 사실을 법 집행기관에 통보했으며,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 국채 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 차입거래를 청산했다고 언급
 - 고객 거래 데이터가 담긴 USB를 BNY멜론 은행에 보내 수동으로 결제 처리
- 하지만, 거래를 BNY멜론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결제 기능 마비로 일시적으로 90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발생해 모기업 ICBC가 긴급히 자본을 투입하여 상황

■ 이번 사태가 美 국채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

- 이번 사태 후 美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금리가 급등하며 ICBC의 국채 거래 불능 상태가 국채 시장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등장
 - 이번 사태는 240억달러 규모의 美 30년물 국채 경매 하루 전에 발생하였는데, 다음날 국채 거래는 입찰 부진으로 금리가 12bp 상승한 4.78%를 기록
- 다만, 참여자들이 거래 경로를 변경했고, 당시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태가 실제 국채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

[1] "Ransomware Attack on ICBC Disrupts Trades in US Treasury Market", FT, 20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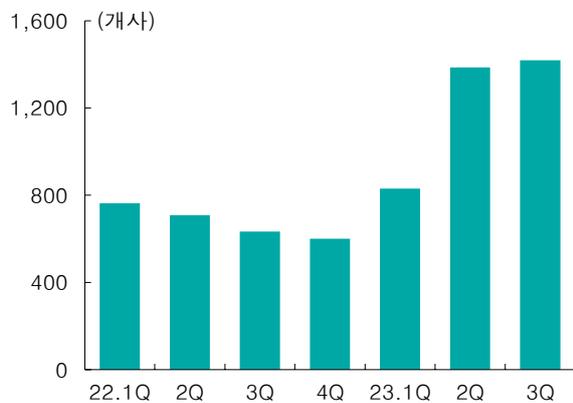
■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확대

- 이번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LockBit은 이전에도 금융기관을 공격한 이력 보유
 - 러시아 사이버 범죄 그룹 LockBit은 美 보잉, 英 로열메일, 런던시 등을 공격한 이력이 있으며, 올 1월에도 거래 청산 및 매칭 소프트웨어 개발사 ION을 공격해 일부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를 수작업으로 전환
- 최근 펜데믹 이후 원격 근무 등으로 기업 보안환경이 취약해지고, 사이버 범죄 집단이 조직화됨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확대
- 피해기업은 대가 지불 외에도 중요 정보 유출, 시스템 복구, 평판 악화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IBM에 의하면 이로 인한 평균 피해 비용은 513만 달러 수준
- 현재 美 재무부가 사이버 보안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규제 강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 규모는 '30년까지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

■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투자 및 내부 거버넌스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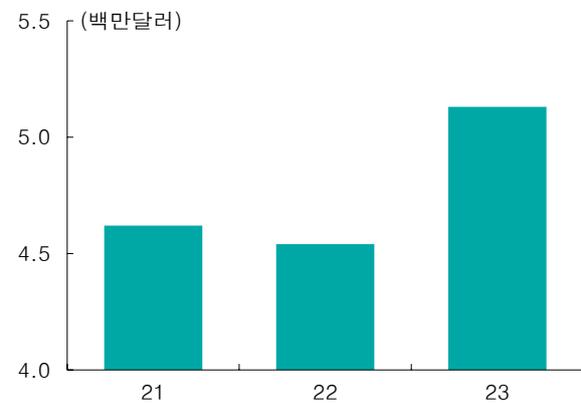
- 美 금융당국이 '21년부터 사이버공격을 은행의 주요 위협요소로 선정하고 IT시스템의 복원력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고용,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 및 기술 투자 확대 등을 추진 중
- 국내 금융당국도 '21년 보안강화를 위해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사들도 임직원 보안교육 강화, 전담 대응팀 및 복구 가이드라인 구축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및 도입 확대를 병행할 필요
 - 국내의 랜섬웨어 유포 증가율은 '21년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며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랜섬웨어 피해 기업 수 추이



자료 : Cyberint

■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평균 피해 비용



자료 : IBM

2024년, 은행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장혜원 수석연구원

글로벌 금융기관 마케터들은 예금 확보, 신규고객 유치, 고객관계 강화를 2024년 은행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과제로 꼽았다. 디지털 혁신으로 금융 및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은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조용한 이탈’(Silent Attrition)과 같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더욱이 디지털 소비환경이 성숙해짐에 따라 고객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 은행은 최첨단 솔루션을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예금 확보, 신규고객 유치, 고객관계 강화 등이 2024년 은행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 글로벌 금융기관 마케터들은 2024년 은행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과제로 예금 확보, 신규고객 유치, 고객관계 강화를 선정¹⁾
- 최근 유동성 이슈와 함께 금리 상승으로 저비용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2020년만 해도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던 대출 증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항목 보다 예금 확보가 최우선 순위로 부각

■ 디지털 혁신으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은행은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조용한 이탈’(Silent Attrition) 등의 위기에 직면

- 금융서비스가 점차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고객 이탈도 불만 표출, 계정 폐쇄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용한 이탈로 변화해 인지도나 대책이 어려움
 - 조용한 이탈(Silent Attrition)은 고객이 거래를 사실상 중단했으나 공식적으로 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로, 은행계좌에 소액만 남겨둔 채 유지하는 상태
- 디지털 전환 비용과 함께 다양한 경쟁자 참여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마케팅 비용은 매해 증가하는 반면, 고객 충성도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²⁾
- 비금융 기업들은 자신들의 본업에 기반한 강점(온라인 쇼핑, OTT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
 - Uber는 Uber Cash를 통해 캐시 충전 시 할인, 차량 외에도 음식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에 캐시 사용 가능,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

[1] “What Financial marketers See as Priorities and Challenges for 2024”, The Financial Brand, 2023.11.6

[2] “Customer Behavior and Loyalty in Banking: Global Edition 2023”, Bain & Company, 2023.3.30

■ 디지털 소비환경이 성숙해짐에 따라 고객 기대는 높아진 반면, 금융거래 비용은 낮아지면서 주거래 은행 변경 등 고객이동이 쉬운 환경

- 빅테크, 핀테크 등 비금융 기업들이 제공하는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 고객 기대는 높아진 반면, 금융거래 비용은 낮아지면서 고객이동이 쉬운 환경 조성
 - Digital Banking Report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다 나은 맞춤형 경험을 위해 주거래 금융기관을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디지털 소비환경이 성숙해지면서 젊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디지털뱅크를 사용하는 비율도 증가
 - 디지털뱅크를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한 비율은 18~24세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자주 이용하는 은행으로 선택한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20% 이상을 차지

■ 은행은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불만을 줄이고, 최첨단 솔루션을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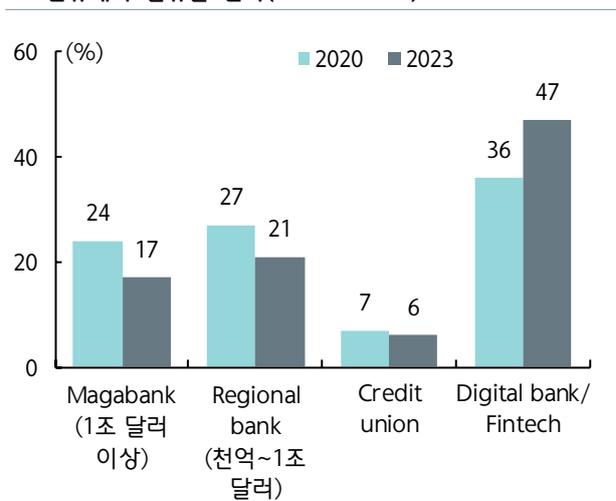
- 조용한 이탈 방지를 위해 은행은 내부 채널 외에도 외부 채널로 고객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으로 참조되는 불만사항 체크 등 문제해결 기회를 확대할 필요^[3]
- 초개인화 서비스로는 고객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권장, 상황에 따른 챗봇 혹은 가상 비서의 즉각적인 피드백, 금융 및 건강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은행이 대규모 초개인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와 같은 최첨단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 타사와의 협력도 중요 

■ 2024년 은행의 최우선 과제 순위

	2023	2020	2013
예금 증대	1	2	6
신규고객 확보	2	4	3
고객관계 강화	3	7	1
브랜드 구축 및 인지도 향상	4	3	4
고객유지	5	8	N/A
비즈니스은행 관계 강화	6	6	N/A
대출 증대	8	1	2

자료 : Digital Banking Report Research(2023)

■ 신규계좌 점유율 변화(2020 & 2023)



자료 : Financial Brand(2023)

[3] “Recognizing ‘Silent Attrition’ is Key to Maintaining Loyalty in Banking”, The Financial Brand, 2023.4.24

금리: 물가지표 및 경기 둔화 시그널에 하락 지속

김 용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도, 美 물가 및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부각과 섀다운 리스크 모면으로 하락했다.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과 높은 임금상승률에도 美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다. 국내 금리는 실업률 예상치 하회에도 생산자물가 둔화와 대외금리 하락 영향으로 하락했다. 경제지표 둔화로 대외 금리의 상방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 금리는 가계신용 확대에 대한 금통위 경계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

■ 글로벌 금리는 美 물가지표 및 경제지표 둔화와 섀다운 리스크 모면에 하락

- 미국 10월 주요 물가지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중심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서비스물가의 하방경직성도 주거비 상승세 둔화로 완화
 - 美 CPI/근원CPI (% , YoY) : 8월 3.7/4.3 → 9월 3.7/4.1 → 10월 3.2/4.0 (예상 3.3/4.1)
- 10월 소매판매 지표가 7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한 가운데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 부각
 - 美 소매판매/경기선행지수 (% , MoM) : 9월 0.7/-0.7 → 10월 -0.1/-0.8 (예상 -0.3/-0.7)
- 아울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안정적→부정적)에도 2차 단기 임시예산안 통과로 섀다운 리스크를 당분간 모면(~1.19일) 하면서 글로벌 금리 하락
 - 美 국채 2/10년물 금리(%) : 11.10일 5.06/4.64 → 17일 4.90/4.44 → 23일 4.90/4.41

■ 국내 금리는 실업률 하락에도 생산자물가 둔화와 대외금리 하락세 동조화로 하락

- 한국 10월 실업률은 2.5%로 예상(2.7%)을 하회했으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비 34.6만명 증가(32개월 연속)하면서 견조한 고용 흐름 지속
 - 韓 실업률/고용률(% , 계절조정) : 8월 2.4/62.6 → 9월 2.6/62.7 → 10월 2.5/62.7
- 10월 소비자물가 반등에 따른 물가 우려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수입물가 하락세가 확대된 가운데 생산자물가의 상승폭도 둔화되며 완화
 - 韓 수입물가/생산자물가 상승률 (% , YoY): 9월 -9.6/1.4 → 10월 -10.2/0.8
- 국내 금리는 실업률 개선에도 물가 우려 둔화와 대외금리 하락세 동조화로 하락
 - 국고 3/10년 금리(%) : 11.10일 3.86/3.97 → 17일 3.68/3.80 → 23일 오전 3.67/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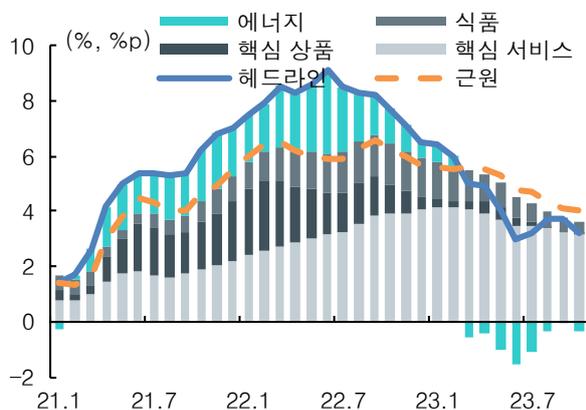
■ 美 10월 인플레이션 예상치 하회로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에 대한 시장 기대감 확대

- 미국 10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9월 3.7%, 예상치 3.3%)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도 4.0%로 완화(9월 4.1%, 예상치 4.1%)
-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반등을 견인했던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식품가격 둔화, 중고차 가격 하락세 지속, 주거비 상승폭 축소 등에 기인
 - 에너지/주거서비스 상승률(% , YoY) : 8월 -3.6/7.3 → 9월 -0.5/7.2 → 10월 -4.5/6.7
- 美 물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축소(9월 2.2%→10월 1.3%), 소비 둔화에 따른 수요측 압력 완화, 자동차노조 파업종료 등 감안 시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초과저축 축소 및 고금리 부담 속에 10월 소매판매는 -0.1%(MoM)로 하락 전환
-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등(10월 4.2%→11월 4.4%)과 여전히 높은 임금상승률(10월 4.1%)에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로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확대
 - Fedwatch 12월 동결/인상 확률(%) : CPI 발표 전일 85.5/14.5 → 11.22일 95.2/4.8

■ 국내외 시장금리는 상방압력 약화되었으나, 가계신용에 대한 금통위 경계발언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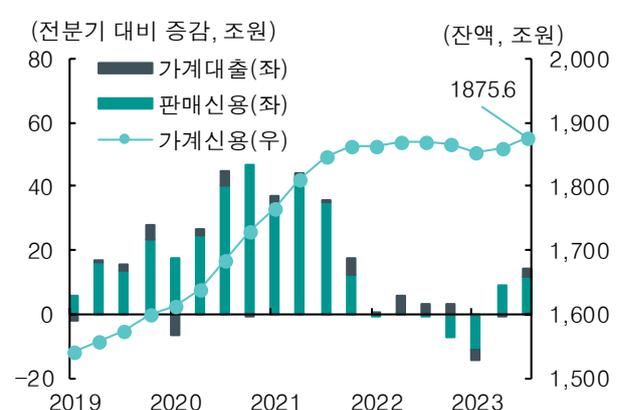
- 그간 주요국 금리는 견조한 경제지표와 디스인플레이션 지연 등으로 상방압력이 강화되었으나 최근 지표 둔화 확인되면서 추가 인상우려 완화 및 금리 하락 전환
 - 美 GDP 성장률 (% , QoQ연율) : 2Q 2.1 → 3Q 4.9 → 4Q 2.1 (GDP Now 예상치)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에도 韓 11월 금통위는 동결이 예상되나, 3/4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이 가팔라지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 총재의 경계성 발언이 강화될 전망
-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에 연동되며 낙폭이 확대되었으나, 11월 금통위에서 韓 물가 및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매파적 발언 가능성 감안 시,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당분간 각 3.60~3.85%, 3.65~3.90% 범위로 예상 

■ 美 CPI 및 항목별 기여도 추이(전년동월대비)



자료 : Bloomberg

■ 한국 가계신용 추이 및 전분기 대비 증감액



자료 : 한국은행

외환: 원/달러 환율, 방향성은 아래

오 현 희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美 물가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지속된 가운데 中 경제지표 호조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1,300원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11월 FOMC 의사록에서 나타난 매파적 태도와 금리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1,300원을 일시적으로 상회하기도 하였다. 원화는 금리인상 종료 기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 흐름 속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유로화 강세와 中 부동산 지원책 등에 따른 위안화 절상 등으로 강세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美 추가 긴축 우려 완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1,290원대 안착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美 임시예산안 상·하원 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위안화 강세 등이 맞물리며 한때 1,280원대 진입
 - 美 10월 소비자 물가가 3.2%(YoY)로 둔화된 한편, 근원물가도 4.0%로 상승폭 축소
 - 中 10월 소매판매(7.6%, YoY)와 산업생산(4.6%) 호조 등으로 위안화 강세
- 다만, 11월 FOMC 의사록에서 물가에 대한 보수적 스탠스가 확인된 가운데 美 기대인플레이션 반등과 실업수당청구건수 예상 하회로 일시적으로 1,300원 돌파
 - 11월 미시간대 1년 기대물가가 4.5%로 반등하며 23.4월 이후 최고치 기록(예상 4.4%)

■ [국제 환율] 달러화는 장기 국채 금리 하락 속에 美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되며 약세

- 달러화는 예상을 하회한 10월 소비자물가와 소매판매(-0.1%, MoM) 등 경제지표 둔화 속 20년 국채 입찰 호조 등으로 美 장기 금리가 하락하자 약세 흐름
 - 다만,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매파적 스탠스와 예상을 하회한 실업수당청구 건수(20.9만건) 등으로 긴축 종료 기대감이 약화되며 일시적으로 강세 전환
- 유로화는 유로존 10월 물가 둔화와 제조업 PMI 예상치 상회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및 무디스의 포르투갈 신용등급 상향(Baa → A3) 등에 힘입어 강세
 - ECB 주요 인사들이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 대한 경계감을 표한 점도 강세 압력
- 엔/달러 환율은 소비와 투자 부진에 따른 3/4분기 GDP 역성장에도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아 150엔 선을 하회
- 위안화는 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와 인민은행의 LPR 금리동결(1년 3.45%) 및 유동성 공급 등 경기부양책 발표가 이어지며 강세

■ 33년만에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는 엔화, 회복시점은 언제일까?

- 엔화는 BOJ가 10.3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에다 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발언 등이 이어지며 한동안 약세를 시현
 - 최근 美 국제금리 하락으로 강세압력을 받기도 했으나, 여타 통화대비 미미한 수준
- 특히 11.15일 발표된 일본의 3Q GDP가 마이너스(QoQ -0.5%)로 전환되는 등 경기모멘텀 약화로 BOJ의 완화정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엔화 약세 가중
- 시장에서는 2024년 봄 노사간 임금협상(춘투)에서 BOJ가 목표한 임금인상을 확인한 후 빠르면 4월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
 - 우에다 총재는 임금-물가-성장의 선순환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견해를 보이며 내년 춘투 회담이 최종적으로 YCC에서 벗어날 시기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일단 BOJ의 정책전환이 이뤄질 경우 엔화의 빠른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
 - 상당기간 지속된 엔화의 저평가 속 엔화 순매도 포지션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엔화에 대한 심리가 개선될 경우 회복 속도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상존

■ 연준 금리인상 종료 기대 속 주요국 경제상황 개선 등으로 원화 강세 압력 지속 전망

- 디스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유로화 강세 전망 등이 더해지며 달러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
- 아울러 양호한 中 경제지표에 이어 부동산 부문 지원책 발표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 속 위안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 등도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전망
- 다만, 시장의 높은 피벗 기대에 대응한 연준의 매파적 입장 재개 가능성 등이 하단을 지지하며, 원/달러 환율은 향후 2주간 1,260~1,310원에서 움직일 전망 

■ 달러화와 美 경기서프라이즈 지수



자료: Bloomberg

■ CFTC 엔화 순매수 포지션과 엔화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1] 행태균형환율(BEER, 기초경제변수들을 이용한 균형환율 추정) 분석결과 엔화는 11% 이상 저평가(Bloomberg)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정책모기지 축소, 고금리 등으로 매수세 위축되며 전월 대비 상승폭 축소되었다. 주담대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될 수 있어 가격 회복세가 가팔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분양가격도 높아진 반면 청약경쟁률은 서울 외에는 저조해 미분양 우려가 높다. 또한 차입여력 약화, 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 격차로 거래가 위축되며 시장 회복세는 열어질 전망이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정책모기지 축소, 고금리 여건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 축소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고금리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월 대비 상승폭 축소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16('23.8월) → 0.25(9월) → 0.20(10월)
- 최근까지 가격 회복 속도가 빨랐던 아파트에서 전월 대비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단독은 상승폭 소폭 확대
 - 유형별 상승률(% , MoM, 9월/10월) : 아파트 0.35/0.27, 연립 0.04/0.01, 단독 0.08/0.12
- 반면, 전세가격은 월세부담 증대, 매매가격 상향에 따라 증대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15('23.8월) → 0.32(9월) → 0.36(10월)

■ 시장 회복세를 이끌었던 요인이 약화되면서 가격 상승세는 둔화 지속될 전망

- 특례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에게 저금리 자금(39.6조원)을 공급하며 주택시장 회복세를 주도했으나 9월 이후 취급대상이 축소되면서 주택 매수세 위축
 - 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주담대 스트레스 DSR 도입계획, 고금리 지속, 매물 증가 등으로 매매 여건이 악화되며 가격 회복세가 가팔랐던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 예상
 - 스트레스 DSR 도입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축소
- 다만,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가격 하단이 지지되고 있어 매수세 위축과 거래 감소에도 매매가격 급락 가능성은 다소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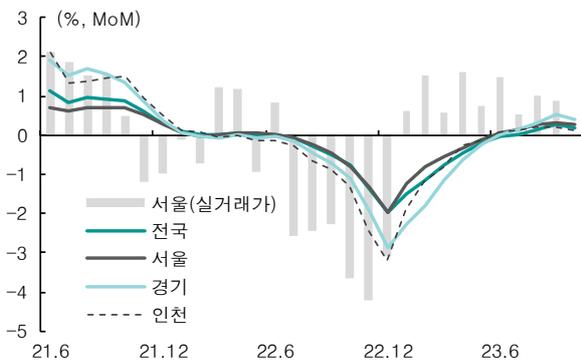
■ 분양물량이 늘었으나 청약시장은 부진해 미분양 재고가 다시 증가할 우려

- 시장 회복세 이후 분양물량이 증가했으나 청약경쟁률은 서울 외에는 저조하며 대출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향후 청약수요 확대는 제한적
 - 청약경쟁률(배수, 3MA, 전국/서울) : 13/79('23.9월) → 17/49(10월) → 14/56(11월)
- 자재비, 임금 등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격에 반영되며 향후 분양물량은 이전 대비 높은 가격대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미분양 우려는 심화
 - 분양물량(만호, 수도권/지방) : 2.4/1.6('23.2Q) → 2.4/2.7(3Q) → 6.7/4.1(4Q)
- 특히 분양가격이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지방에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미분양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시장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서울, 경기의 분양가격은 민간택지 내 분상제 적용 영향으로 매매가격 하회

■ 또한 차입여력 약화,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호가 격차로 시장 회복세는 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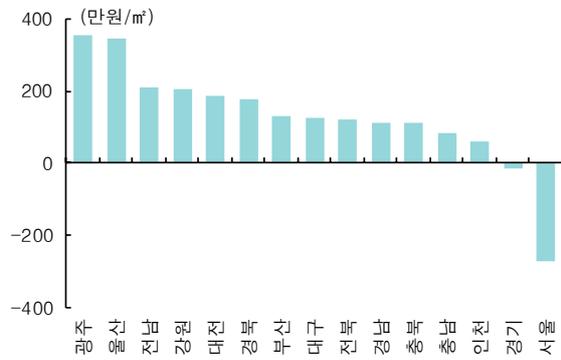
- DSR 규제 및 이자 부담 증대로 인한 차입여력 약화, 정책모기지 축소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 축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조원, 전월대비 증가폭) : 7.0('23.8월) → 6.1(9월) → 5.8(10월)
- 실거래가 상승으로 매도자의 호가는 높아졌으나 매수자의 희망 가격은 낮아 매도자와 매수자간 호가 격차로 인해 거래 부진이 지속
 - 매매 거래량(만호, 수도권/지방) : 5.0/6.9('23.1Q) → 7.0/8.6(2Q) → 6.8/8.1(3Q)
- 기존 주택매각 지연, 잔금대출 미확보 등으로 지방에서는 수분양자의 아파트 입주 및 거래 종결이 지연되며 가격 회복세가 더욱 둔화될 전망
 - 아파트 입주율(% , 수도권/지방) : 81.5/61.6('23.9월) → 80.7/68.8(10월)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아파트 분양가격과 아파트 매매가격 간 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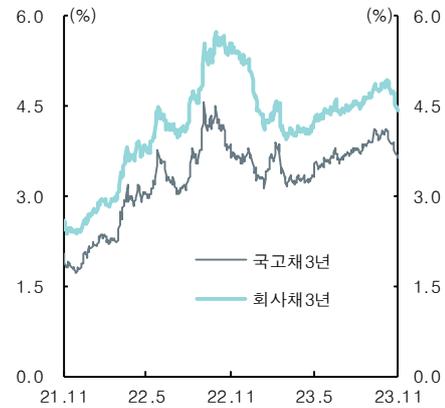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2023.1~3Q 평균값 간 차액)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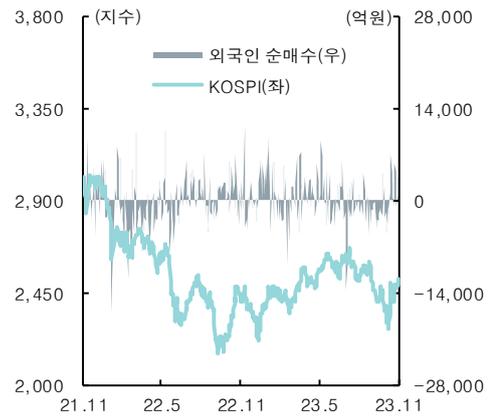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0월말	3.50	3.82	4.11	4.91	4.09	4.20
11월 17일	3.60	3.83	4.01	4.50	3.68	3.72
11월 20일	3.60	3.83	4.00	4.47	3.67	3.70
11월 21일	3.59	3.83	3.99	4.44	3.64	3.68
11월 22일	3.62	3.83	3.99	4.45	3.67	3.70
11월 23일	3.60	3.84	3.98	4.42	3.64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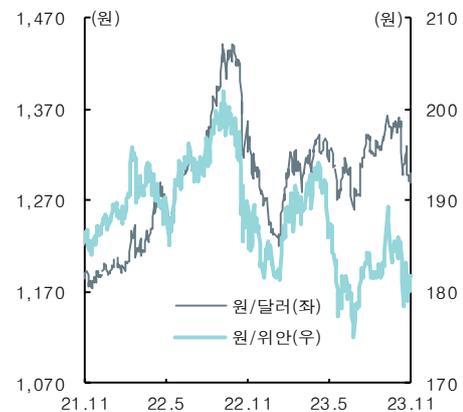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0월말	2,278.0	82,331	395	-3,273
11월 17일	2,469.9	81,295	389	-752
11월 20일	2,491.2	65,864	324	1,000
11월 21일	2,510.4	77,134	345	3,529
11월 22일	2,511.7	77,553	439	1,430
11월 23일	2,515.0	65,779	361	1,185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0월말	1,350.5	890.5	184.6	1,427.9
11월 17일	1,296.9	866.4	179.8	1,414.7
11월 20일	1,291.6	870.7	180.1	1,413.2
11월 21일	1,289.2	868.8	180.7	1,406.7
11월 22일	1,300.5	869.3	181.7	1,415.9
11월 23일	1,297.5	867.5	181.7	1,4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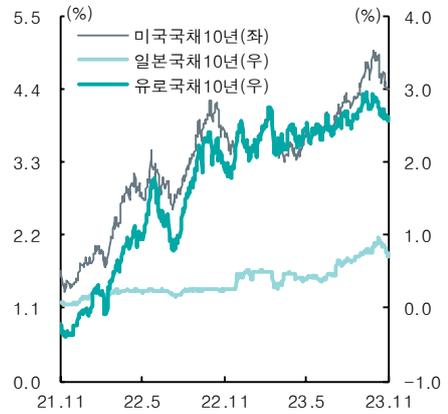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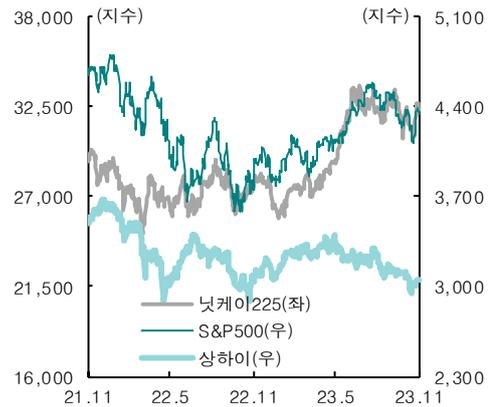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10월말	5.33	5.38	5.09	4.93	0.95	2.81
11월 17일	5.33	5.37	4.89	4.44	0.76	2.59
11월 20일	5.33	5.37	4.91	4.42	0.75	2.61
11월 21일	5.33	5.38	4.87	4.39	0.70	2.57
11월 22일	-	5.38	4.90	4.40	0.73	2.56
11월 23일	-	-	4.90	4.40	0.73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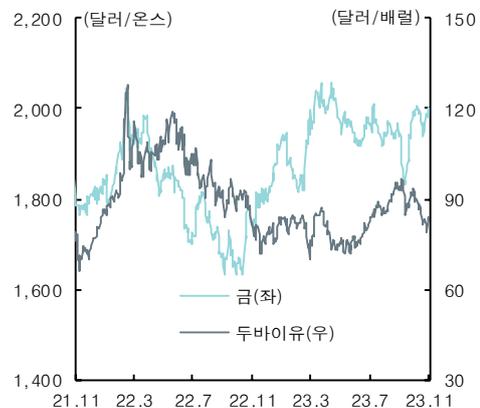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10월말	4,193.8	30,858.9	3,018.8	4,061.1
11월 17일	4,514.0	33,585.2	3,054.4	4,340.8
11월 20일	4,547.4	33,388.0	3,068.3	4,342.4
11월 21일	4,538.2	33,354.1	3,067.9	4,331.9
11월 22일	4,556.6	33,451.8	3,043.6	4,352.0
11월 23일	-	-	3,061.9	4,361.3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0월말	151.62	1.057	88.1	1,994.3
11월 17일	149.69	1.091	79.2	1,984.7
11월 20일	148.33	1.094	82.8	1,980.3
11월 21일	148.39	1.091	83.4	2,001.6
11월 22일	149.60	1.089	84.2	1,992.8
11월 23일	149.56	1.091	82.7	-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영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2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